

굴려서 빛은 찰흙 공...우리 마음도 둥글게

27 July, 2016 | 조상인 기자

굴려서 빛은 찰흙 공 우리 마음도 둥글게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3번째
중진 작가 김수자 ‘마음의 기하학’展

지름이 19m에 달하는 거대한 타원형의 나무 테이블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5전시실이다. 그 테이블 위에는 띄엄띄엄, 굴려 만든 둥그란 찰흙 덩어리가 놓여 있다. 테이블 주변으로 의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잡았다. 앉아보라는 얘기다. 관객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4가지 색의 찰흙덩어리를 한 주먹 뜯어와 이 곳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손바닥의 힘으로 흙을 느끼며 찰흙을 굴려 둥그리미를 만들면 된다. 작가 김수자는 “뽕족한 마음의 모서리를 깎듯 찰흙을 굴려 둥근 찰흙 공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권한다. 작품의 규모를 비롯해 알듯 말듯 한 적막감이 관객을 압도하는 이 작품의 제목은 ‘마음의 기하학’.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드는 작품이



김수자의 신작 ‘마음의 기하학’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다. “관객들이 만들어서 놓고 가는 찰흙 구(球)가 테이블 위에 펼쳐질 것이고 그것이 또다른 회화의 평면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작가의 설명이 뒤따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진 작가를 선정해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대규모 개인전을 여는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의 세 번째 작가로 뽑힌 김수자의 전시 ‘마음의 기하학’이 27일 개막해 내년 2월 5일까지 열린다. 명상적이고 사색적인 영상작품으로 유명한 김수자는 보파리와 이불보, 소리와 빛 등을 이용한 장소 특정적 설치작품과 퍼포먼스 등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탐구해 왔다. 전시작 9점은 모두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작품들이다. 뉴욕과 파리를 오가며 활동하는 김수자는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메트폴피두센터 개인전,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개인전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조상인기자